



###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 제10 법사품

#### 고원천착의 비유

《법화경》에는 모두 열 여섯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인 '고원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 즉 '고원 천착의 비유'가 제10장 '법사품'에 들어 있다.

'법사품'에서 석존께서는 바이사라자(藥師) 보살에게 《법화경》의 위대함에 대해 설한다. 그 가운데서도 《법화경》의 신앙에 의해 최고의 바른 깨달음이라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 대해 설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요약하면, 《법화경》을 설하고 읽어 주고 노래해 주고 옮겨 쓰며 《법화경》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라도 일곱 가지 보배로 된 탑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탑 속에는 부처님의 유골(舍利)을 두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화경》에는 예래의 전신(前身)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탑을 꽃(華)·향(香) 등 갖가지 물건으로 공양·존경·존송·찬탄해야 한다.

물을 필요로 하여 고원(高原)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한다고 하자. 마른 흙을 보면 물은 아직 먼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노력하며 계속 파서 차츰차츰 습기가 있는 흙을 보고, 이렇게 하여 점차로 진흙에 도달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물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다."

이상이 고원천착의 비유이다. 《법화경》 자신은 이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수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최고의 바른 깨달음은 아직 멀다고 알아야 한다. 만일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사유하며 수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최고의 바른 깨달음은 모두 이 《법화경》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이 《법화경》은 방

###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고원에서 우물파는 것에 비유

이 탑에 예배·공양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예래의 전신(前身)이 《법화경》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 예래 그 자체를 설한 경전임을 지적하고, 다시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 모두를 성불시킬 수 있는 경전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에 재가든지 출가든지 보살도를 수행하는 경우,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믿어 간직하고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아니며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고 이해하며 간직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보살도 수행의 중심이 《법화경》 신앙임을 지적한다.

《법화경》 신앙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석존께서는 고원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를 들어 설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타서

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창고는 깊고 견고하며 깊숙하고 아득히 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부처님은 보살을 교화하여 성숙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열어 보이는(開示) 것이다"라고 한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의 법을 열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성불을 지향(志向)하고 보살에게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당연히 《법화경》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 '법사품'은 앞의 9장 '수학무학 인기품'까지와는 그 내용이 크게 달라져 《법화경》을 받아들여 간직함과 그 넓힘이 테마로 되어 있고, 경전 성립사상(成立史上)에서도 이 '법사품'에서 제22장 '혹무품'까지를 한데 묶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보살행의 실천을 설하는 이 한 덩어리의 부분이야말로 《법화경》 본문의 중심부라고 하여 이 한 덩어리의 맨 처음 부분인 제10장을 기점으로 《법화경》을 재검토하려는 사람도 있음을 말해 둔다.

■무설정사 조실



정공스님이 27년째 주석해 온 덕유산 극락사의 전경.

# 의심하나 간절히 일으켜

전북 정주의 덕유산 자락에 숨어있는 극락사. 이곳에 주석하시는 정공스님을 친견하는 길은 미로와도 같은 여정이었다. 3월 16일 주말에 출정(出定)을 가는 기자의 마음은 미지의 세계를 찾는 구도자의 심정과도 같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막연히 큰 스님이 계시다는 말만 듣고 절을 찾았기 때문이다. 제가 불자들은 물론 수좌들의 친견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욱 기자의 심선에 불을 붙였는지, 물이 물이 길을 가는 시골정경이 정경(正景)까지 했다.

오후 5시경 도착한 극락사는 덕유산 자락이 높을수록 포근히 감싸여 있었다. 토굴처럼 허름한 극락사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자, 한 비구니 스님이 인기척을 느끼고 나왔다.



중생계의 고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하며, 구경자를 향한 치열한 정진을 늦추지 않고 있는 정공스님은 극락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 정공스님은?

#### 수행경력 특이...田岡문하서 화두 타파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선사의 망상좌이자, 인천 용화선원 원장 송담스님의 사형인 정공스님은 열불삼매와 화두삼매를 함께 터득한 특이한 수행이력을 갖고 있다.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난 정공스님은 5세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했으며, 18세에 열불삼매를 이루었다. 열불삼매를 이룬 후, 이 세상을 정토의 세상으로 바꾸고자 출가를 발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선지식을 만났

으나, 자신을 인도해 줄 스승을 만나지 못해 몇해동안 방황하다 29세에 전강(田岡)선사를 만났으며 비로소 즐거움에 이르렀다. 전강문하에서 '이렇고 화두와 '판치생모' 화두를 타파한 후 '정공은 이미 오후사(悟後)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았다.

1975년 전강선사 열반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정수 극락사에서 주석하고 있다. 법명은 정공, 법호는 지공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 등 30여명의 상좌를 두고 있다.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정공스님 (극락사 조실)

"어디서 왔어요?"  
"네, 저는 서울 현대불교신문 기자인데 요, 큰스님을 친견하고 싶어 왔습니다."  
"큰스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냉정한 비구니 스님의 말에 주춤하며, 기자는 "큰스님이 숨은 도인이라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고 말했다.  
"글세, 큰스님은 언론이나 공개적인 법회에 일체 나서지 않는다고요."  
반복되는 스님의 거부와 기자의 간청이 이어졌다. 결국 법음을 듣고 새롭게 발심할 불자들을 위한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자, 스님은 이윽고 객실로 기자를 인도했다.

객실에서 비구니 스님은 큰스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근대의 선지식인 전강(田岡)永信, 1898-1974 선사의 망상좌로 열불삼매와 화두삼매를 동시에 체득하고서도 평생 울렁한 하며 30여년간 극락사에서 은거하고 있다는 정공스님.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경자를 이르기 위해 홀로 치열하게 정진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행자 스님이 준비해 준 저녁 공양을 먹으며, 정공스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이번 걸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했다.

다담을 한 참 나는 7시경 밖에서 나는 인

기척. "주지 있는가?"  
"네, 스님 들어오세요. 손님이 왔어요."  
이윽고 들어선 노스님. 극락사 조실 정공스님은 기자가 상상하던 근엄한 모습의 큰스님이 아니었다. 남루한 작업복에 줄로 맨 바지끈, 방금 울렁하다 온 차림 그대로 소탈한 모습이었다. 자비스런 미소를 띤 스님에게 3배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했다.  
"참선과 염불은 다 공도리(空道理)야."  
참선이나 염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무슨 방편이든지 100% 몰입해야 견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정공스님은 "지극히 알기 어려운 사람의 몸 반 있을 때,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들로부터 받는 보시의 무서움을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스님은 '시주만 죽 내고 공부하지 않은 스님들이 지옥에 많이 있다'며, 철저하게 스님들의 의식주를 직접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시사철 혹독한 울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가까이서 보시는 상좌들이 배겨나기 힘들다는 것이 시봉하는 스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1920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정공스님은 여느 스님과는 다른 특이한 수행이력을 갖고 있었다. 특출한 불자였던 어머니 김일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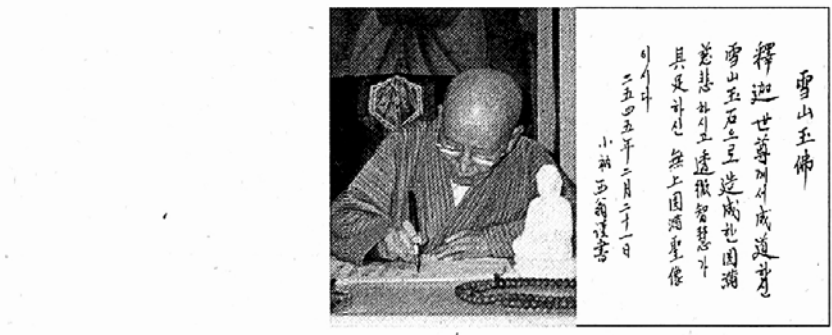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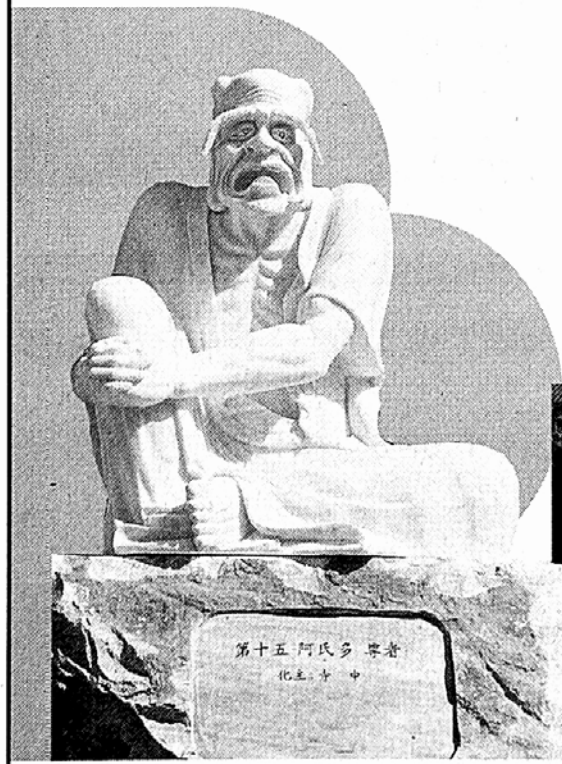
"일어나는 망념 무엇이든 상관 말고 두려워도 말라  
'옴마니 반배홍' 전연염불  
말법시대, 알맞은 수행법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or.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만방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688



고불승림방장 서운 큰 스님 / 추천서

